

건강 칼럼

남성 안면거상술 수요 증가... 자연스러운 턱선 복원 핵심은?

외모 관리에 적극적인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성형외과를 찾는 남성 환자 연령대와 수술 목적이 다변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눈, 코 성형이나 가벼운 시술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3040세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안면거상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추세이다.

미국성형외과학회(ASPS)의 통계에 따르면 남성들의 안면거상술 선호 경향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뚜렷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는 남성 안면거상술의 성패는 피부 표면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아래 위치한 섬유근막층인 스마스(SMAS) 레이어를 정확하게 분리하여 처지기 전의 원래 위치로 거상하는 것에 달



김수철 에이징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

러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뼈 구조가 각지고 턱 주변 유지인대가 매우 강하다. 따라서 스마스층을 충분히 넓고 깊게 분리하지 않으면 수술 후 당기는 느낌이 강하거나 유지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 유지인대를 확실하게 분리하고 스마스층을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올바르게 고정해야만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고 입체적인 턱선이 복원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남성의 안면거상이 여성의 수술과 접근 방식부터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피부의 두께, 혈관 분포, 유지인대의 단단함은 물론 모발의 선과 구레나룻의 위치 등 남성만이 가진 해부학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남성의 피부는 여성보다 두껍고

혈관이 더 발달해 있어 수술 중 정밀한 지혈이 필수적이며, 수술 후 혈종 예방을 위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구레나룻이나 턱수염이 나는 피부가 수술 후 뒤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절개선 디자인 시 모발선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고도의 기술이 동반되어야 한다.

다만 안면거상술은 안면신경 손상, 출혈, 감염, 비후성 반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의 외과적 수술이므로 대중적인 유행이나 과장된 광고에 의존해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만족스럽고 안전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성 안면 구조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자재언

재난 앞에서 함께 지키는 안전

재난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멈춰 세우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키는 이들이 바로 경비경찰이다.

경비경찰은 단순한 출입을 통제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재난 발생 시 위험지역을 통제하고, 구조기간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을 확보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난 현장으로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인원을 통제하고 교통관리지원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이러한 활동은 구조와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경비경찰은 재난 현장에서 극도의 긴장감과 위험을 감수한 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 선다. 폭우 속에서 밤을 새우며 침수지역을 통제하거나, 장시간 이어지는 근무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며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재난을 극복하는 힘은 경찰단의 노력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시민들의 안전의식과 협조가 함께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재난 현장으로 호기심에 접근하지 않고, 경찰과 관계기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허위 정보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말고, 공식 재난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평소 가족과 비상 연락망을 정하고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작은 준비도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철저한 준비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경비경찰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으며, 시민 또한 질서 있는 행동과 적극적인 협조로 그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모일 때 재난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위기가 된다. 안전은 누군가의 희생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경비경찰의 헌신과 시민의 참여가 함께할 때 비로소 더욱 굳건해진다.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재윤 전주원시경찰서경비과 경장

장마철, 안전운전은 '속도줄이기'에서 시작

장마철에는 짧은 시간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도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평소보다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시야가 좁아져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가 내리는 날에는 무엇보다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 젖은 노면에서는 타이어와 도로의 마찰력이 감소해 급제동이나 급핸들 조작시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평소보다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또한 물웅덩이를 지날 때는 속도를 낮춰야 한다.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 차량이 물위에 떠 미끄러지는 수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행자에게 빗물을 튀기게 하는 피해도 줄 수 있다.

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나 하천변 도로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발전에는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 와이퍼 작동 여부, 전조등과 브레이크를 점검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낮에도 전조등을 켜면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내 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

장마철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작은 방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조금 늦더라도 안전하게"라는 마음으로 감속운전, 안전거리 확보, 침수구간 우회를 실천한다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비 오는 날의 안전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본이다.

정태철 순창경찰서 교통수시팀 경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백로와의 '상생'을 택한 전주시

요즘 각 태어난 백로들이 활발히 성장하는 시기로, 악취와 소음 원인이 크다. 불편 해소 위해 인근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는 방식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별목 대신 공원으로 '완충 지역'을 확보한 전주시의 '상생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전주 신도시의 한 공원 바로 옆으로 우거진 숲이 이어진다. 울퉁내에 나와 제법 몸집을 불린 어린 왜가리가 남쪽으로 먼 아동을 앞두고 비행 연습에 한창이다.

도시화와 개발로 많은 번식지가 훼손되면서, 도심 속 야간에 터전을 잡게 된 것이다. 백로류는 지역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지만, 집단 서식하는 특성 때문에 도시에선 민원의 대상일 뿐이다.

백로 서식지와 주택가 사이 '완충대'가 없어 전국적으로 벌어

지고 있는 일이다. 의외로 백로 민원이 비교적 적은 곳이 바로 전주다. 전주 효천지구는 과거 개발 과정에서부터, 백로 서식지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 방향을 '공존'으로 잡았다.

'백로공원'을 조성해 아파트와 서식지 간 이격거리를 확보한 것이다. 민원이 이어지면, 서식지 일대를 '별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백로와의 '상생'을 택한 전주시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유일한 모델이다.

전주 전지산 일대로 오랜 백로 서식지다. 개체수가 천여 마리에 달해 여전히 크고 작은 민원이 이어지기도 한다. '도시공원'의 일부이다 보니 무분별한 벌목과 강제이주를 피할 수 있었다. 백로와의 '상생'을 택한 전주시의 사례가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베네수엘라 초강력 지진 '대참사'

최근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초대형 강진의 참상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4일(현지시간) 오후 6시 5분쯤, 베네수엘라 라파라주의 북쪽 엔테테인먼트 시설 앞마당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진동이 시작되자 야외 마당으로 급히 대피하던 시민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꺼번에 바닥으로 고꾸라진다.

강력한 지진파의 위력에 인간의 균형 감각이 완전히 무력화된 순간이다. 진짜 공포는 도로 건너편에서 벌어진다.

시민들이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사이, 맞은편에 있던 대형 건물이 크게 뒤물리기 시작해더니 단 7초 만에 폭발하듯 수직으로 무너져 내린다.

붕괴와 동시에 발생한 거대한 먼지 폭풍이 무너진 건물들을 압축

으로 가려버린다.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한 누리꾼은 '파괴야 지진 포착, 건물들이 지각 변동을 단 7초도 버티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력한 연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1,700명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5,000여명, 이재민은 1만5,0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전국적으로 180채 이상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망자 급증에 대비해 시신 가방 1만 개 확보에 나섰다.

실상가상으로 폭우를 동반한 열대 파동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이재민들의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